

공공 예술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통합 촉진

조아오 안토니오 소아레스

동티모르 평화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동티모르

존경하는 평화의 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티모르 평화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조아오 안토니오 소아레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이토록 놀라운 평화만국회의의 발판을 마련해주신 HWPL 이만희 대표님의 끊임없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열정으로 이 자리에 모여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포함합니다.

HWPL과 IPYG와 저의 인연은 2022년 제가 온라인 평화만국회의에 참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표님의 확고한 헌신과 평화를 추구하는 자원 봉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HWPL이 미치는 영향력은 실질적이고 강력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HWPL과 함께 제 조국인 동티모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었습니다.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로부터 2002년에 독립한 젊은 국가입니다. 동티모르는 1999년의 위기와 2006년 쿠데타와 같은 여러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겼고, 분쟁의 대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희는 청년들이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평화와 사랑의 가치를 가르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HWPL과 IPYG는 동티모르에 청년 평화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계기로 저희는 정부 관계자들과 청년단체 및 대학생들과 함께, IPYG 청년 평화 구축 워킹그룹 즉 YEPW를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함께 동티모르의 수도 딜리를 평화의 도시로 바꾸는 중대한 여정에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IPYG 글로벌 4지부와 함께, 저희는 딜리의 벽들을 활기찬 평화의 색깔로 장식하는 벽화 프로젝트를 구상하였습니다. 이는 청년, 지역 예술가,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의 자원봉사의 손길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HWPL과 동티모르의 연합된 노력은 평화 벽화를 보는 모든 이에게 평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티모르의 문화, 역사, 그리고 포부를 반영하며 지역 관광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적인 참여는 지역사회의 결속력과 단결력 촉진하였고 청년들의 주인의식을 불러 일으키어 그들이 그들의 도시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다른 단체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도시의 벽체 사용에 대한 허가, 페인트 용품에 대한 지원, 벽화 디자인 그리고 청년층의 참여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프란시스코 칼부아디 레이 부총리와 넬리오 아이작 사르멘토 청년체육예술문화부 장관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확고한 지지는 도시의 벽을 평화의 메시지로 꾸밀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딜리의 중심에 위치한 샤나나 스포츠 센터 벽은 우리의 캔버스가 되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벽화에 필요한 용품들을 구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IPYG의 글로벌4지부는 페인트를 지원할 회사를 찾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IPYG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국제적인 장비 회사인 Vinod Patel이 섭외 되었고 Vinod Patel은 기쁜 마음으로 벽화 프로젝트의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Dili의 운영 관리자인 Vikash Ray 씨는 벽화에 꼭 필요한 페인트와 붓을 아낌없이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큰 도약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YEPW 워킹그룹은 딜리에 있는 6개 대학의 대학생들을 섭외하였고 그들의 열렬한 열정은 저희 프로젝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한국의 예술 단체는 벽화 디자인에 기여해주었고, Arte Moris 소속 10명의 동티모르 예술가들은 벽화 아웃라인을 그리는 것과 프로젝트 진행의 가이드 라인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저희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은 2023년 7월 31일, 샤나나 스포츠 센터 행사장에서 진행된 HWPL 평화 벽화 출범식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청년체육예술문화부 장관과 정부 수석 고문을 포함한 영향력 있는 내빈들은 친히 참석해서 이 행사를 축하해주었습니다. 대학 총장, 부총장, 다양한 청년 단체장 및 6개 대학을 대표하는 학생들의 참석은 우리 청년들의 헌신에 대한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동티모르 국영 방송사인 RTTL을 포함한 7개의 미디어 플랫폼이 이 행사를 취재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지금, 저희 프로젝트는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평화, 창의성, 그리고 화합의 메시지로 우리의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왼쪽 사진처럼 보였던 벽이 오른쪽 사진처럼 아름다워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경이로웠던 점은 개개인이 함께 모여 만든 결과라는 것입니다. HWPL과 IPYG의 끊임없는 동기부여와 장관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인의 봉사의 마음들이 이 성과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활동은 우리 모두가 평화를 위해 한 목적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벽화 프로젝트는 저희 도시 전체가 평화로 빛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HWPL과 IPYG와 함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여러분에게 영감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평화에 대한 우리 모두의 열정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HWPL의 이 대표님의 비전적 지도력과 HWPL과 IPYG 팀의 지치지 않는 헌신과, 존경하는 동티모르 장관님들, 그리고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만들어 가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 아 원 ! 감사합니다.

